

- **주요 뉴스: 중동 전쟁 종전 협상 불확실성 지속, 예멘 후터 반군 참전 시사**
 - 미국 연준 주요 인사,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
 -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인사, 신중한 통화정책 입장 유지 시사
 - 일본은행(BOJ), 금리인상 이후에도 금융여건 '완화적' 평가
- **국제금융시장: 중동 전쟁 불확실성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미국 주가 하락[-1.7%],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2bp]

 - **주가:** 미국 S&P500은 고점 대비 -8.7%, 다우는 기술적 조정(고점비 -10%) 진입
유로 Stoxx600은 중동 전쟁 영향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지면서 하락(-1.0%)
 - **환율:** 달러화지수, 안전통화 선호 등으로 상승. 엔/달러는 160엔 상회
유로화는 미 달러화 대비 0.2% 약세, 엔화는 0.3% 약세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상승
독일은 ECB 금리인상 기대(→ 연내 3회)가 커지면서 15년래 최고치 경신

※ 뉴욕 1M NDF 증가 1506.9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0.1% 하락). 한국 CDS 보합

		3.27일	3.26일	전일대비			3.27일	3.26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368.9	6,477.2	-1.67%	국채 금리 10y	미국	4.43%	4.41%	+2bp
	유럽	575.30	580.84	-0.95%		독일	3.09%	3.07%	+2bp
	중국	3,913.7	3,889.1	+0.63%		영국	4.97%	4.97%	0bp
	일본	53,373	53,604	-0.43%	CDS 5y	한국	35bp	35bp	+0bp
	한국	5,438.9	5,460.5	-0.40%		중국	54bp	52bp	+2bp
환율	달러지수	100.15	99.90	+0.25%	위험 지표	EMBI+	292	282	+10
	유로화	1.1509	1.1527	-0.16%		VIX	31.05	27.44	13.16%
	엔화	160.31	159.81	-0.31%		WTI유	99.64	94.48	5.46%
	위안화	6.9112	6.9140	+0.04%	원자재	구리	546.7	544.7	0.38%
	원화	1,508.9	1,507.0	-0.13%		금	4,494.1	4,376.1	2.7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중동 전쟁 종전 협상 불확실성 지속. 예멘 후티 반군 참전 시사

- 미국 윗코프 중동 특사, 이번 주 이란과의 회담이 있기를 희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을 원한다고 발언. 다만, 대통령은 ‘힘을 통한 평화’를 믿고 있으며 압박 없이는 누구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부언
-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 이스라엘이 이란의 인프라 시설을 공격했고 이스라엘 측은 이를 미국과 공조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해결을 위해 데드라인을 연장한 조치와 모순된다고 지적
- 예멘 후티 반군은 성명을 통해, 제시하는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단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경고
 - 제시된 조건은 ▲특정국의 미국-이스라엘 동맹 가담 ▲미국-이스라엘의 홍해 이용(적대적 작전 수행 목적) ▲이슬람 공화국 등에 대한 군사적 공세 지속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연준 주요 인사, 에너지 가격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

-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대규모 AI 투자가 노동시장과 생산성 추세를 재편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전쟁이 가세하면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유가 급등에 의해 디스인플레이션 진전이 지연될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
- 폴슨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가계·기업의 물가 인식이 민감해짐에 따라 일시적 가격 충격 요인들이 더 주목받게 되었으며,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빠르고 오래 지속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

■ 유럽중앙은행(ECB) 주요 인사, 신중한 통화정책 입장 유지 시사

- 슈나벨 이사, 현재는 '22년에 비해 금리가 높고 재정정책 지원이 적으며 팬데믹에 의해 억눌린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경제지표를 신중하게 분석할 시간이 있으므로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서둘러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
- 파트살리데스 정책위원(키프로스), 전쟁의 지속 기간이나 강도의 변화 징후는 보이지 않으며 유로존은 여전히 기존 전망을 따라가고 있다고 평가. 아직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금리 결정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프랑스 정부, '25년 재정적자 개선 조정. 지출 확대 가능성은 일축

- 통계청(INSEE), '25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5.1%/GDP으로 '24년(5.8%) 대비 축소되었으며, 정부부채(마스트리히트)는 112.6%/GDP에서 115.6%로 확대되었다고 발표. 적자 축소는 지출 둔화(4.0% → 2.5%)와 수입 증가(3.2% → 3.9%) 양 측면에 기인
- 아미엘 예산장관, 글로벌 불확실성이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에너지 충격의 피해를 입은 가계·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타 부문의 지출 삭감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언급. 르코르뇌 총리는 유류세 인하, 보조금 지급과 같은 광범위한 재정 지원 가능성은 일축

■ 일본은행(BOJ), 금리인상 이후에도 금융여건 '완화적' 평가

- 「자연이자율 동향과 금융완화 정도 평가」 리뷰를 통해 일본 자연이자율 추정치를 업데이트(6개 모형 추정치의 중간값은 -0.4%). 코로나19 이후 잠재성장률의 완만한 상승과 안전자산 수요 둔화가 중기적으로 자연이자율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설명
-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대형 M&A가 활발해지면서 자금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금융 여건은 12월 정책금리 인상(0.50% → 0.75%) 이후에도 완화적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중국 공업이익 증가세 가속화. 고유가는 향후 부담 요인

- 국가통계국(NBS)은 대규모* 공업기업들의 1~2월 총이익은 1.02조 위안으로 전년 동월대비 15.2% 증가(25.12월 +5.3%)했다고 발표 * 연간 주영업수익 2,000만위안 이상
- 아울러, 컴퓨터·통신·전자장비(0.11조위안, +203.5%)를 중심으로 제조업 이익(0.73조 위안, +18.9%)이 큰 폭 증가하면서 개선을 주도했으나 지정학적 긴장의 파급 위험이 중국 성장 전망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부문별 회복세는 고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

주요 경제·금융 이벤트

- EU 3월 경제심리지수(98.3_{2월} → 96.8_{전망}), 산업심리지수(-7.1 → -10.5), 독일 3월 소비자물가지수(+1.9%_{2월} → +2.6%_{전망}), 인도 2월 산업생산(+4.8%_{1월} → +4.1%_{전망}) 등 경제지표 발표
-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 연설, 일본은행(BOJ)의 3.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주요 의견 공개를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입장을 가늠(현지시간 3.30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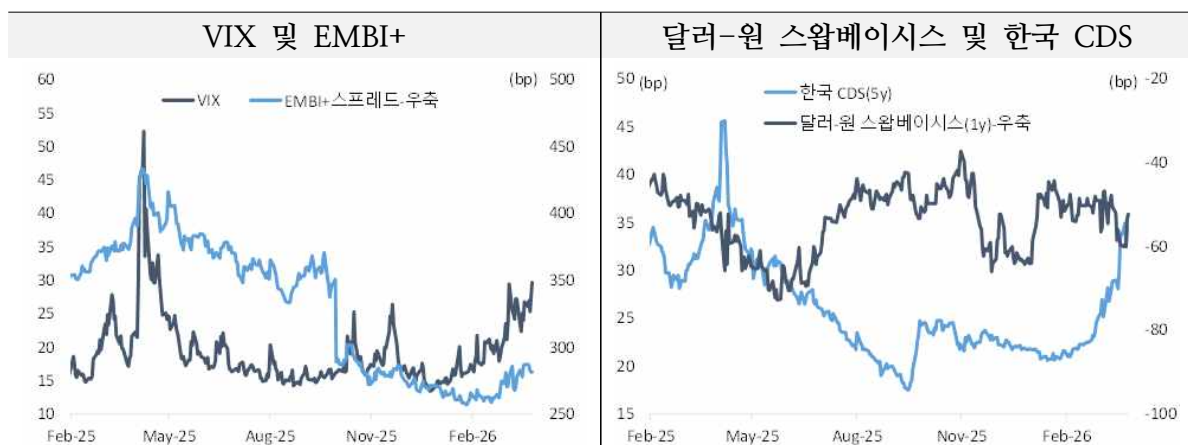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11, E-mail swlee@kcif.or.kr